

고·백·서
高級수능영어百書

저자: 윤재남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대원외고 졸업

현 모비딕영어연구소 소장, EBS교재 사전검토위원,

강남 종로학원, 대치 부영이학원,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전임교수

전 강남대성,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저서: 스탠다드 영문법: Standard English Grammar,

Standard 구문독해: 영어문장 해석공식 264,

7일 만에 끝내는 영단어[기본편](모비딕영어연구소),

대치동 1등급 영문법, 대치동 1등급 영어독해(대치박스),

윤재남EBS연계영어모의고사(솔티박스),

영문법의 날개를 달자 (미래N)

“If the book we are reading doesn’t wake us up with a blow on the head, what are we reading it for? A book must be the axe for the frozen sea inside us.” ~ *Franz Kafka*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뒤통수를 때리는 깨우침을 주지 않는다면, 뭣 하러 그 책을 읽을까요? 책이란 우리 내면의 얼음 바다를 깨기 위한 도끼여야만 합니다. ~ *프란츠 카프카*

저는 주업인 강의와 저술을 빼고 나면 책 읽기, 영화 보기,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입시영어 강사입니다. 교육정책이나 입시동향에 민감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사교육 종사자로서 결국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까 봐 일부러 그런 문제를 외면한 적도 많습니다. 현대, 최근 들어 영어교육의 큰 틀과 관계있어 보이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능영어를 대하는 수험생들의 실력과 자세에 있어 ‘퇴행’에 가까운 질적인 변화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동일 직종의 다른 분들에게 의견을 구해 봐도 이것은 비단 제 개인만의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세대’가 수능영어를 대하는 자세?

수능영어가 절대평가로 변한 2018학년도가 결정적인 변곡점 중 하나였습니다. 상대평가보다 1등급을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로 수능영어가 쉬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전망이 팽배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태도, 한정 없이 느슨해졌지요. 절대적 학습량과 학습시간이 줄었습니다. 2017년의 수험생은 지나친 낙관 속에 공부하였습니다. 2018년의 수험생은 지나친 낙관 속에 공부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고1~2는 어떨까요? 수능영어를 뒷전이고 오로지 내신영어입니다. 내신에 서술형이 있다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지엽적인 지식의 암기 여부가 승부를 가르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과거의 상대평가 시절이 마냥 호시절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항 앞에 주눅 들어 있는 학생들을 독려하는 것도 힘들었고, 정답만 찾으려 하는 또 다른 학생들의 오만에 애정 어린 비판을 하는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인 지금은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영어 수업 자체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능영어 교재를 찾아서 푸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 보편적 무관심과 무기력 앞에 수능영어가 어려웠다는 소식(2019학년도 1등급의 비율은 5.3%로 2018학년도의 10%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음)을 반색하며 환영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간접연계 강화, 어떻게 대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원점수를 97~98점 혹은 무려 100점을 받아야 1등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쉬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득점에 어울리는 높은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학습법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지요. 특히 유독 어려웠던 유형인 빈칸완성 중심으로 영어 학습이 재편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수능영어의 난이도가 다시 높아졌다는데, 그 양상은 과거와 달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EBS 70% 연계가 고정이어서 EBS 교재 특히 그 중에서도 한글해석만 암기하는 사태를 지양하고자 간접연계가 강화됐습니다.

간접연계라지만 다른 지문이 활용됐다 하더라도 소재나 주제가 거의 판박이여서 연계 체감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주제나 제목 같은 비교적 쉬운 대의과약 유형에만 한정돼 출제됐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전체 유형의 난이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간접연계의 '연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출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히 비연계라 불러도 다를 바 없는 간접연계 말이지요.

난이도가 올라간다면, 기초학문 수준의 학술 독해에 신경을?

『고백서(고급수능영어백서)』는 애초에 난이도 높은 비연계 대비 영어독해집으로 기획됐습니다. 90점만 넘겨서 1등급을 확보하겠다는 현실적 태도와 거리를 두고, 좋은 글을 많이 읽고 깊이 고민하는 것이 독해 실력을 쌓는 대비책일 뿐이라는 원칙에서 말이지요. 절대평가가 되어서도, 간접연계의 범위와 밀도가 높아지는 현재의 수능영어 경향에 비춰 여전히 유효한 교재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절대평가에서는 전체 유형의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순서와 삽입 유형의 난이도가 빈칸 못지않게 올라온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유형이었던 주제, 제목, 요지, 요약, 무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유형 외에 주목해야 할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재와 주제! 일상 분야의 글보다는 학술적 소재(언어철학, 지리과학, 과학철학, 행동심리학, 진화생물학, 생태학 등)의 지문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좋은 적수를 만나야 내가 빛난다!

기초학문 수준의 글에 쉽게 적응하고 무리 없이 읽어내는 데 『고백서』가 좋은 안내서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들 가운데 이왕이면 좋은 글감을 고르는 데 많은 신경을 쓴 책이 『고백서』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데서 악역이 셀수록 주인공이 더 빛나듯, 단단한 글과 견줄수록 나의 실력도 강해집니다. 무작정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사색과 탐구를 요구하여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는 그런 글을 찾았습니다. 수능영어의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주요 대학·고교의 추천 필독서 등을 출제 지문으로 활용하며 필독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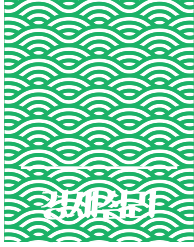
지문만 나열하면 답답한 감이 있을 수 있어,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보통의 문제 집과는 달리 “생각할 거리”도 제공하고 영화나 시사적 소재도 간간이 활용하였습니다.

지문에 이어지는 문제는 되도록 고난도 유형(빈칸, 어법, 어휘, 순서, 삽입, 무관, 장문) 위주로 출제했습니다만, 어렵기 위한 어려움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있는 어려움이란 문제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 고백서』를 준비하며

『고백서』는 햇수로 4살입니다. EBS 수능연계와 절대평가 때문에 많이 얼어붙어 있는 영어독해 시장에서 그래도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스스로를 깨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자잘하게 수정만 해오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 교재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최신 기출 10문제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백서』와 같은 교재를 내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들의 ‘공부’는 계속 돼야 하니까요.

모비딕영어연구소 소장
윤재남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카너먼

1.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New York cabdrivers may have a target income for the month or the year, but the goal that controls their effort is typically a daily target of earnings. Of course, the daily goal is much easier to achieve (and exceed) on some days than on others. On rainy days, a New York cab never remains free for long, and the driver quickly achieves his target; not so in pleasant weather, when cabs often waste time cruising the streets looking for fares. Economic logic implies that cabdrivers should work many hours on rainy days and treat themselves to some leisure on mild days, when they can “buy” leisure at a lower price. The logic of loss aversion suggests the opposite: drivers who have a fixed daily target will work many more hours when the pickings are slim and go home early when rain-drenched customers are begging to be taken somewhere.



Contrary to commonsensical economic logic, people tend to be (A) to put forth more effort to generate income once they have reached a(n) (B) goal.

(A)

- ① willing
- ② willing
- ③ reluctant
- ④ reluctant
- ⑤ slow

(B)

- long-term
- short-term
- attainable
- immediate
- unrealistic

경제학
생각에
관한
생각

단어 Word

cabdriver n. 택시 운전자
target n. 목표
income n. 수입
typically ad. 보통
earnings n. 수입
exceed v. 초과하다
for long 오랫동안
cruise v. (천천히) 돌아다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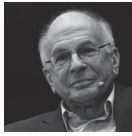
fare n. 승객; 요금
logic n. 논리
imply v. 함의하다
treat oneself to ~을 즐기다
loss aversion
 손실 혐오(사람들은 이익을 얻기보다는 피해를 피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하다는 경제학과 의사결정이론의 개념)

opposite n. 반대
fixed a. 고정된
picking n. 채집(물)
slim a. 빈약한
drenched a. 흠뻑 젖은
beg v. 간청하다
commonsensical
 a. 상식적인

generate v. 창출하다

생각거리 Food for Thought

“이전 베팅에서 돈을 판판이 잃었으니, 이번에는 분명히 딸 수 있을 거야.” 도박꾼의 오류(gambler's fallacy)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모의고사에서 안 나오던 점수가 수능에서 나올 리가 없는 데도, 우리는 어떤 ‘비합리적’ 가능성에 은근히 기대를 걸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행위는 과연 어느 정도로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인 것일까요?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 1934~)의 『생각에 관한 생각 (Thinking, Fast and Slow)』(2011). 경제학을 인간의 행동과 그 이면의 심리를 통해 설명하려는 대표적 행동경제학자의 대중교양서.

구문 Syntax

<L3> On rainy days, a New York cab never remains free (for long), / and the driver quickly achieves his target; (it is) not **so** in pleasant weather, / **when** cabs often waste time cruising the streets looking for fares.

⇒ not so 앞에는 it is 생략.

⇒ so: 앞 문장의 내용(never remains free for long)

⇒ 시간 명사(pleasant weather) + 관계부사 when + 완전한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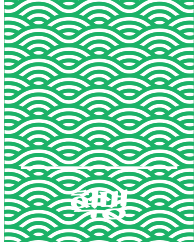
<L8> The logic of loss aversion suggests **the opposite**: ~

⇒ the opposite: 앞 내용의 반대 내용(cabdrivers should work many hours on rainy days and treat themselves to some leisure on mild days, when they can “buy” leisure at a lower price)

복습 Review

괄호 안에서 문맥상 혹은 문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 When you drive, you must not [exceed / imply] the legal limit.
2. He [begged / fixed] the objects by means of ropes.
3. The politician is popular in the liberal eastern part of the country, but [so / not so] in the conservative west.
4. He gained national fame in 2002, [when / where] he became the first Korean athlete to play in the NBA.
5. Most people look forward to the weekend, but with him the [opposite / same] is true.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

100.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f all political ideals, that of making the people happy is perhaps the most dangerous one. It leads invariably to the attempt to impose our scale of 'higher' values upon others in order to make them realize what seems to us of greatest importance for their happiness; in order, as it were, to save their souls.

- (A) It leads to Utopianism and Romanticism. We all feel certain that everybody would be happy in the beautiful, the perfect community of our dreams. And no doubt, there would be heaven on earth if we could all love one another.
- (B) It is our duty to help those who need our help; but it cannot be our duty to make others happy, since this does not depend on us, and since it would only too often mean intruding on the privacy of those towards whom we have such amiable intentions.
- (C) But, as I have said before, the attempt to make heaven on earth invariably produces hell. It leads to intolerance. It leads to religious wars, and to the saving of souls through the inquisition. And it is, I believe, based on a complete misunderstanding of our moral duties.

*inquisition: 종교 재판

- ① (A)-(C)-(B) ② (B)-(A)-(C) ③ (B)-(C)-(A)
- ④ (C)-(A)-(B) ⑤ (C)-(B)-(A)

혁명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단어 Word

ideal n. 이상, 이념
lead to ~로 이어지다
invariably ad. 변함없이
impose ~ upon ...
 ~을 ...에 강요하다
in order to ~하기 위하여

scale n. 등급, 척도
values n. 가치(관)
as it were 이른바, 말하자면
(A)
Utopianism
 n. 공상적 이상주의

Romanticism n. 낭만주의
community n. 공동체, 사회
heaven on earth 지상낙원
(B)
intrude on ~을 침범하다
amiable a. 쾌활한

intention n. 의도
(C)
hell n. 지옥
intolerance n. 불관용
misunderstanding n. 오해

생각거리 Food for Thought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 이후 약속된 풍요와 평화 대신 단두대나 대숙청을 목도했습니다. 또 혁명 앞에 미완이란 말이 붙을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불 피웠던 ‘촛불 혁명’의 방향은 배반과 배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계속 전진해보기를 바랍니다.



칼 포퍼(Karl R. Popper, 1902~1994)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1945): 반증(反證)을 허용하는 과학과 달리, 나치즘과 공산주의 같은 유토피아적 기획들은 완전함과 순수함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도그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며 ‘열린 자유주의’를 옹호한 정치철학의 고전.

구문 Syntax

<L2> It leads (invariably) to the attempt {to impose our scale of ‘higher’ values upon others / in order to make them realize [what seems (to us) of **greatest importance** for their happiness]}

- ⇒ 명사 the attempt를 to 부정사구 { }가 뒤에서 수식
- ⇒ 동사 realize + 목적어 what절 []
- ⇒ 전치사 of + 추상명사 importance: 형용사구

(B) <L1> but it cannot be our duty to make others happy, (since **this** does not depend on us), and (since it would only too often mean intruding on the privacy of those {**towards whom** we have such amiable intentions}).

- ⇒ since 가 이끄는 이유부사절 () 2개의 병렬
- ⇒ 대명사 this = to make others happy
- ⇒ 전치사 + 관계대명사(towards whom)가 이끄는 형용사절 { }이 those를 수식

복습 Review

괄호 안에서 문맥상 혹은 문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 An emotional decision is almost [ideally / invariably] a wrong decision.
2. The court can [impose / intrude] economic sanctions on countries found in violation.
3. There is so much hatred and [intention / intolerance] and so little compassion and love in this world.
4. As for hiring an employee, his physical appearance is [of / on] secondary importance.
5. He has the ability to approach and connect with those to [which / whom] no one wants to talk.

기출 난제 #3. 2018년 9월 모평

오답률 및 정답 Wrong Answer Percentage / Correct Answer 66% / ①

해석 Translation

1950년대 비평가들은 사실주의의 고상한 의식에 기초한 판단을 통해 대중문화의 산물들이 제공하는 '자연적인'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대중들과 분리시켰다. 예를 들어, Douglas Sirk가 만든 영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 두기 효과를 옹호하는 대부분의 비평가들에게는, 연속극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는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여전히 있다. 이런 거부는 다시, '홀륭한' 취향의 정당한 논리를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 실제로는 비평가가 만들어낸 아무 생각 없고 즐거움만 추구하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그 비평가를 분리하는 기능을 한다. 그것은 또한 여성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을 강요한다. 대중문화의 비평들은 항상 사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나타내기 위해 여성성의 경멸적 이미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다. 그런 다음, 취향 만들기의 과정이 작용하여, 군중의 인지된 무취향적 즐거움과는 상반되는 미학적 입장의 구축을 통해서, 심미주의자들과 대중 사이에 위계상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해설 Explanation

주제 유형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지문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푼 친구가 얼마나 있을까요? (이해했는지 여부는 틀렸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옆 친구에게 설명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이 지문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강의나 해설들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속속들이 이해하지 말고 얼개만 파악하여 맞추라고 주문합니다. 얼개라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어물쩍 파악했다고 착각하니 오답(대표적으로 선택지 ⑤)으로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1950년대 비평가들)부터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1950년대? 무엇을 비판? 동사가 separate oneself(A) from (B)입니다. 비평가(A)와 대중, 군중(B)이 대립되는 이항대립의 글입니다. 이런 '대조' 방식의 글에서는 A의 속성이 a라면, 글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B는 ~a(a의 반대)라고 과감한 재단을 감행하는 것이 대체로 허락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비평가	대중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를 거부.	the 'natural' enjoyment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를 향유?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을 통해.	refined하지도 않고, realism도 아니라는 뜻?
Douglas Sirk의 영화들을 옹호 Douglas Sirk는 리얼리즘적? 사회 비판, 자기반영성, 거리두기 효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비평가들이 좋아해.	Douglas Sirk의 영화들을 따분해 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the 'vulgar' enjoyments suspected of soap operas를 거부해. (Douglas Sirk도 드라마 같긴 했다는 거야?)	대중은 '천박한' 드라마 좋아해?
비평가는 스스로 좋은 취향을 가졌다고 생각.	군중은 그럼 나쁜 취향을 가진 것임? 생각 없이 쾌락이나 추구하는 집단으로.
	여성의 취향과 주관성이란 부정적 개념을 강요. 민중의 타락 = 여성적. 아~ 드라마는 그들이 값싼 눈물을 질질 짜는 것이라는 뭐 그런 통념?
위계적 차이 형성. 심미안을 가진 엘리트.	군중은 심미안을 갖진 못한 무리? 몰취향의 쾌락만 추구.

비평가들이 대중의 취향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①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보다도 대중문화의 사회학, 취향의 사회사, 예술사조의 역사 등에 대한 글들을 평소 조금이라도 가까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능에서는 평소 보지 못한 지문들을 맞닥뜨려서 짧은 시간 안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